

특히 양계산물가격은 그 가격 변동이 심하다. 유통기구가 복잡할 뿐 아니라 가격형성에도 제반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며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나 심해 양계가가 곤란을 겪고 있다. 이 얽히고 설킨 장애물을 제거할 방법은 과연 없을까?

기사작성 : 정 수 환

지난 73년 하반기 이래 양계경기는 많은 침체를 보여 닭 숫자가 무려 40%나 감소했을 것이라 한다. 작년도 우리 양계업계가 겪은 파동은 실로 너무나 크다. 세계적인 곡물과동으로 사료자원 부족이 원인이 되어 도입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사료가격도 무려 3차례에 걸쳐 80.5%나 상승한데다 이것마저 규정된 품질을 보증하지 못해 조악(粗惡)한 사료를 생산, 사료효율은 극도로 저하되어 사육하는 닭의 성장에 지연을 초래하여 닭의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업чин데 덩치격으로 작년도 전국을 맹타한 뉴캐슬은 양계장의 닭이 거의 전멸해 있을 정도로 우리 양계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세계적인 에너지 파동으로 소비는 위축될 대로 위축, 양계산물 가격은 생산비 수준 이하에서 판매하는 비참한 현상을 겪어 왔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업계는 도저히 양계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문닫는 양계장이 속출 양계수수는 많은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태풍과도 같은 불경기의 내습으로 양계협회를 추축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여러 업계의 중진

들이 빈번한 접촉을 가져 우리 스스로 생산과잉을 방지, 무절제한 초생추를 생산하여 산물가격을 저하시킴으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자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0일간 전국적으로 입란증지를 단행했다. 입란증지 계몽반은 각팀으로 나뉘 전국을 순회하면서 업계가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계몽하는 한편 대부분의 업자의 동의를 얻어 내는데 성공, 양계협회가 주도해서 하나의 큰 결실을 이루하는데 개가를 올린 바 있다.

### 양계산물가격 서서히 회복

이러한 단합된 힘을 과시한 결과 초생추 생산은 줄어들었고 양계산물가격은 약간의 상승을 보여 일말의 희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각 축산잡지에서도 이러한 업계의 침체를 경기전망으로 다뤄 기사화 했는데 관련업계 인사들도 업계의 불경기가 언제나 타개될는지 확실한 전망을 내리지 못하고 막연한 추정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내다 봤으나 그 어느때보다 자신있는 전망



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양계업은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일정한 경기의 주기가 형성되어 있어 연도, 계절, 월별, 기타 외부경기에 의해 많은 변화를 받고 있고 특히 계절적인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 이러한 주기적인 변동에 생물을 다루는 양계업자로서 늘 이런 변동을 겪어왔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경기변동을 감수하면 다시 회복단계에 접어 들므로서 일시적인 적자요인을 카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래 계속된 불경기야말로 너무나 그 여파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궤도를 되찾기엔 아직도 시일이 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무기력한 중에서도 난가가 대란 평균 180원대 까지 상승, 생산비 수준을 유지 또는 상승하여 감소된 산란계 수수만으로 양계업을 영위하기에 일루의 희망을 안겨 주었고 지난 4월 중순이후 육계가격은 사상 유례없는 500원대 이상을 훑가하는 가격을 나타내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 kg당 500원의 가격은 적당한 가격형성이었나?

사람이 추구하는 욕망은 대부분 같을 것이다. 더 낫아지고 싶은 욕망, 더 윤택하게 생활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볼때 양계가도 다를바 없다고 생각된다. 4월중순이후 부로일러 가격이 500원대 이상을 넘어섰다. 농장도 가격이 kg당 500원이라면 그 가격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아마 농장도 가격이 500원 이라면 이것을 사먹는 소비자는 여러 유통기구를 거쳐 소비하게 되므로 다른 육류보다도 비싼 닭고기를 소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쨌든 양계가에 있어 물량만 충분하다면 심심찮은 가격이며 이익을 내기에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닭고기의 물량이 과연 충분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기형적인 가격 형성

그러면 어째서 500원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한양계협회를 주도로 실시한 전 양계인의 입란조절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우리업계가 수년동안 겪어 왔지만 대부분의 부화업자들이 무절제하게 병아리를 부화하여 출하하므로서 양계산물의 폭락현상을 매년 겪어 왔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미등록 부화장에서 은밀히 까내는 왕병아리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실로 생산과잉을 초래하기에 알맞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의 입란조절 효과는 우리 양계인도 단결하면 된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한 크나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입란 조절을 통해서 40일간 부화를 하지않게 되었기 때문에 4월중순 부로일러 가격은 사상유례가 없었던 가격을 형성한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때 출하한 육계는 이미 입란중지전에 또 입란중지 결정후 일부 무책임한 부화업자가 눈을 속여가며 입란하여 출하한 것이 이때 훗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남의 눈을 속여가며 입란한 부화업자는 얼마의 이익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회 윤리를 망각한 부조리야말로 지탄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입란조절이 부로일러 가격의 높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요인은 작년도 뉴켓슬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만연이 양계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어 닭 숫자가 격감했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작년도 전국을 휩쓴 뉴켓슬은 양계가에 이중 삼중의 슬픔을 안겨줘서 양계가는 하루아침에 자가가 사육하는 닭을 매물해야만 하는 곤욕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질병의 막대한 피해도 가격의 폭동의 원인이 되겠다.

세제는 유통과동을 비롯한 제반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 세계적인 유통과동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물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상승 40~50%의 생활필수품가격이 상승되어 일반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일반 주부들은 식료품비에서 생활비를 절약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달걀과 닭고기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 소비자를 위축 그나마의 산물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어 양계가는 생산비이하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닭을 종래의 수준으로 사육한다는 것은 더 많은 적자요인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여건은 산란계, 부로일러는 물론 종계를 기르는 사람까지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힘들워 종계를 도태하는 현상까지 보이게 되었다. 이런 제반요건으로 볼때 4월중순에 500원대 이상의 부로일러 가격은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형성된 비현실적인 가격 형성이며 양계가에 있어서는 하등의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 기형적인 가격 형성이었다고 말할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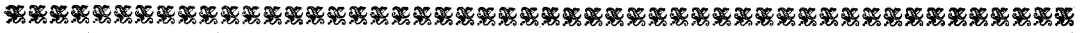
### kg당 450원 그런대로 관 찮은 가격

이러한 부로일러 가격이 비록 일시적으로 이상적(異狀的)인 가격형성 이었지만 양계가에게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였다. 업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이나 하듯이 너도나도 부로일러 초생추를 부화장으로 주문하여 부화장에서는 이 기간동안 부로일러 초생추를 팔기에는 수월했고 일부 주문에 따르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로일러업은 100m를 뛰는 단거리 주자(走者)와도 같이 8주면

자기의 사업을 관가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외부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많은 부로일러를 입추하는 바람에 가격은 얼마 안가서 450원대 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부로일러 업자에게 있어 450원대의 가격은 500원대 이상의 가격기대에는 빛나갔다 하더라도 전년도의 손해를 복구하는데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 자고 일어나니 가격 폭락

그러나 이러한 가격도 결국 오래 지탱하지는 못했다. 무모한 과잉입추는 전에도 경험했듯이 항상 쓰라린 경험을 낳게 마련이다. 부로일러 업자가 이러한 좋은 가격형성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모한 생각임을 우리는 가격형성의 주기를 분석해 볼때 너무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월간양계 5월호에 최근 5년간의 부로일러 월별 평균가격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영계백숙등 닭고기 소비가 늘어 육계가격은 여름철에 항상 좋은 가격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닭고기 가격상승 현상이 일찍 나타났다. 이것은 물론 앞서 지적한 요인에 의한 물량 부족과 불철 야유회등 일시적인 소비증가 현상이 가격상승을 부채질한 요인이된 것 같다. 초생추 출하현상은 예년에도 그랬듯이 3~4월을 기점으로 5~6월까지의 출하량의 기복은 있긴하지만 초생추가 출하되는 성수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육용계 초생추도 다른 달보다 증가는 되었지만 작년도 수준에 비해 많은 감소를 보인 것으로 보아 가격이 현재와 같이 폭락했다고 해서 물량면으로 작년도 수준에 비해 과잉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물론 작년보다도 닭고기 소비는 위축되었다 할지라도 500원이상을 훑가하던 가격이 서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6월들어 그 가격하락폭은 종잡을 수 없게 떨어지게 되었다.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모 생산자는 하루아침 자



고일어나니 육계가격이 50~60원이 하락되어 어안이 빙빙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루아침사이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양계장은 kg당 270원이라는 생산비 보다는도 100원이 미치지 않는 가격에 부로일터를 출하하게 되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자고일어나니 세상이 변했다는 말을 듣곤한다. 오늘 좋았던 부로일터 가격이 내일아침 출하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하루아침에 270원까지 하락했다면 양계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게 될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 생산자 자신의 투매과열에 상인이 가격조작

그러면 이러한 갑작스런 가격하락요인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청량리 육계회의 이철순씨는 요즈음의 가격하락 현상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육계업은 예측하기가 힘이들어 작년도 보다 닭 숫자를 줄였다고 한다. 그러나 닭 숫자를 줄였다고 해서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를 줄일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궁극적으로 갑작스런 가격하락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봤다. 첫째는 육계출하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3월에 입추한 닭이 대부분 5,6월에 출하하게 되는데 3월에는 2월에 비해 육계출하수가 많은 증가를 보여 숫자적으로 보아 육계가격을 하락시킬 충분한 요인이 되며, 둘째는 돼지고기 값이 예년에 없이 폭락한 반면에 3~4월에는 이상적(異狀的)으로 닭고기 값이 높아 오히려 닭고기를 먹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소비했고, 셋째는 금년 주말에 공교롭게도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주말에 많이 판매하는 닭고기가 소비가 부진하지 않으나 생각되며, 네째는 실제로 양계장에서 출하되는 가격이 비싼가격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다먹는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섯째는 최근의 모 지역에서 뉴캐슬이 발생했다 하여 이러한 질병이 두려워서 너도나도 닭을 조기투매하는 현상을 보여 가격하락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닭상인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조작이 아닌가로 본다. 가령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지역에서 가격을 충돌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양계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역별로 서로 의견을 교환 가격형성에 양계가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교환이 제대로 되지못해 양계가는 상인들의 가격하락 편승에 말려들어 닭값이 내려가기전에 팔아 치우겠다는 실리적으로인아작용된데다 상인들이 이런현상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아 편승해서 닭을 더욱 싸게 구입하게 되므로 닭값은 천정부지로 하락세를 보였는 것이다.

## 큰 생산업자 모임결성으로 적정가격 형성토록

현재 생산자는 상인에 비해 언제나 약세에 놓여있다. 상인이 사주지 않으면 출하기간을 넘겨야만 한다. 닭상인은 이곳 저곳의 농장을 방문 어느농장에서는 kg당 얼마인데 이 농장은 너무비싸 사갈 수 없다고 하며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한다. 상인들간에는 서로의 연락이 민활, 이러한 가격조작 행위로 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출하할 닭을 상인이 사주지 않으면 당장 곤란을 겪게 된다. 더구나 거리가 먼곳에 있는 양계가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게되면 좀 더 덜 미치지 위해 너도 나도 출하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상인들의 가격조작에 의한 가격하락에 양계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생산자가 상인

에 비해 약세에 있는 지금의 현실을 역전시켜 생산자가 언제나 강한 위치에 서서 적정가격으로 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사실 몇몇 큰 육계업자들이 지역별로 육계회를 결성 가격에 관한 정보를 수시교환 일정가격 수준이하로는 판매치 않기로 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면 지금과 같이 270원대까지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현재 몇몇 계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란가격을 조정하고 있어 계란가격은 어느 정도의 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 양계가 스스로 자숙 필요

이번 육계가격 하락으로 우리 양계가는 다시 한번 자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가 지난번 실시한 입란조절은 양계인 스스로 무모한 생산과잉을 방지하고 양계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단합된 결과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몇달 지나지 않아 다시 과잉출하로 가격의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도 수준까지 출하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울들어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좋았다고 해서 너도나도 사육, 출하 하여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양계가는 스스로 자숙해야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궁극적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상 육계가격뿐 아니라 축산물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유통기구의 단축, 닭고기 소비가 제질적으로 편중된 것을 연중소비 되도록 계몽하는 일, 과잉된 산물을 비축할 수 있는 저장시설, 축산물가격통제(소고기, 돼지고기)철폐, 지역간의 단합 결속등 여러가지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궁극적으로 해결

해야할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국내시장의 협소를 타개하고 외국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겠다. 현재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여 국내시장의 부로일려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의 대단위 유통회사인 다이에, 주식회사와의 닭고기 수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결실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국내시장에서 양계산물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싶다. ■

#### > 도움 주신분들 <

이철용, 이철순, 경면현  
원용택, 김지태

